



식품군 늘리고
부진팬 과감히 정리
대형마트 '선택과 집중'
니



Life

한미약품
'모녀' 손들어준
국민연금
L2



3代 함께... 재즈신동... 전문대 이색 입학생의 '새로운 도전'

"같은 대학에서 가족이 공부하니 능력 2배, 행복 2배입니다."

2024년 새 학기 전문대학에 독특한 사연의 이색 입학생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한 대학에 3대 가족이 동문이 된 사연을 비롯해 15세 '재즈 신동'의 조기입학, 50대 늦깎이 입학생 등 다양한 사연을 가진 신입생들이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27일 올해 입학한 전문대학 학생 중 이색적인 사연을 모아 공개했다.

◆"연주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서울예술대학교(이하 서울예대) 실용음악전공으로 입학한 곽다경(15세) 씨는 4세 때 SBS '스타킹'에 출연했고 다양한 재즈 페스티벌과 공연에서 활동하며 연주 실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제12회 한국음악대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신인상'을 수상하며 최연소 수상자 기록을 세웠다.

곽다경 학생은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서울예술대학교 실용음악전공 곽다경 씨.

“재즈신동, 서울예대 조기입학 K-컬처 산실... 재즈 대가 성장

을 검정고시로 마쳤다. 주변 권유로 외국 유학을 생각했으나, 서울예대 실용음악전공 입학에 도전했다.

곽다경 씨는 "K-컬처의 산실인 서울예대에서 열심히 연습하여 10년 뒤 세계적인 무대에서 활동하는 재즈 분야의 대가로 성장하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림성심대학교 전화자, 조미연, 정원민 씨.

“3대 함께 한림성심대 신입생 입학 가족과 의지하며 즐거운 대학생할

◆"공부하는 즐거움, 3대(代) 가족 함께" 지난 3월, 한림성심대학교(이하 한림성심대)에 3대(代)가 함께 24학번으로 입학했다. 3대 입학생은 바로 전화자(63세) 씨, 조미연(40세) 씨, 정원민(19세) 씨 가족이다.

올해 63세의 전화자 씨는 "현재 요양보



부산여자대학교 문헌정보과 이수연 씨.

“행복한 노년 준비 꿈꾸며 입학 책 소개하고 알리는 사서 목표

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더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이 대학 ACE인재융합학부에 진학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딸 조미연 씨는 "그동안 중단된 학업을 아쉬워하던 중, 어머니인 전 씨의 도전에 감명받아 함께 지원하기로 결심했다"고 얘기했다. 손녀인 정원민 씨는

"의지할 수 있는 동기가족이 있어 대학 생활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슬기로운 노년 생활" 새 꿈 위한 도전

부산여대 문헌정보과에 입학한 이수연(53세) 씨는 평소 책을 좋아하며 직장 생활을 하는 주부였다. 이 씨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행복한 노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입학 결심했다"고 진학 동기를 밝혔다. 이 씨는 많은 책들을 소개하고 알려주는 사서로 일하는 것이 목표이자 꿈"이라며 장래 희망을 말했다.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전문대학에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나이에 상관없이 제2의 인생 도전을 하고 또 본인이 원하는 전공을 찾아 유턴 입학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며 "전문대학은 인생 이모작 차원의 평생교육을 학습하기 위해 진학하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무교다동에 녹지 품은 업무시설 들어선다

서울시, 무교다동·세운지구 재개발 도심에 업무·근린생활시설 조성

서울시는 이달 26일 열린 제7차 건축위원회에서 '무교다동 제2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포함해 총 4건의 건축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과한 곳은 ▲무교다동 제2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3-2, 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3-8, 9, 10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6-3-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다.

'무교다동 제2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중구 을지로1가)'을 통해 지하철 1호선 시청역과 2호선 을지로입구



무교다동 제29지구 조감도. /서울시

역 사이에 지하 6층~지상 23층 규모의 업무시설과 문화·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건축위원회는 보행 공간 개선을 위해 기존 보도(을지로·무교로)의 지하 출입 시설을 대지 내부로 옮겼다. 또 개방형 녹지를 확보하고, 이와 연계된 저층부 공간을 계획해 가로공간을 활성화하는

계획안을 수립했다.

세운 3-2, 3구역에는 2개동 지하 9층~지상 36층, 세운 3-8, 9, 10구역에는 2개동 지하 9층~지상 39층, 세운 6-3-3구역에는 1개동 지하 8층~지상 32층 규모의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조성된다.

건축위원회는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다채로운 도시 경관을 창출하는 디자인 콘셉트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녹지가 부족한 도심의 현황을 고려해 건축물 계획 시 녹지율을 높일 것"이라며 "보행자 위주의 가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

서울 늘봄학교, 5월부터 151개교로 확대

늘봄 서비스 참여기관 확대 추진

서울시교육청이 신청학교 38곳에 그쳤던 늘봄학교를 151개교로 늘려 5월부터 사업을 시작한다. 정규 수업 이후 오후 4시 하교하는 학생을 위해 1시간 추가 돌봄을 제공하고, 한글과 수학 과정을 개설해 기초학력 증진에 나선다. 지방자치단체 운영 시설로 순환버스를 태워 학생들을 보내는 등 늘봄 서비스 참여 기관 확대도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의 '서울형 늘봄학교 세부 추진 대책'을 발표하고, 관내 151개교에서 5월 시행을 목표로

로 다음 달 학교별 점검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돌봄과 배움이 공존하는 서울형 늘봄학교'라는 비전 아래 ▲교육과정 연계 최적화 ▲기존 방과후·돌봄 내실화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등 10대 과제를 선정해 서비스 질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늘봄학교 시행 시 문제로 지적돼 왔던 '부족한 공간'은 지자체 공간을 확보해 해결한다. 아울러 학교 내 늘봄학교 관련 공간을 확보하면서 교사연구실을 확충하고 기존 돌봄교실을 리모델링해 여건을 개선한다.

/이현진 기자

'봄꽃의 향연' 고양국제꽃박람회 확대 개최

일산호수공원에서 내달 26일 개막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무역전시회로 국제 인증하는 '2024고양국제꽃박람회'가 일산호수공원 일원에서 4월 26일부터 5월 12일까지 17일간 규모를 대폭 확장하여

개최된다.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이사장 이동환)는 꽃박람회 행사 시 고질적인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박람회 개최를 위한 대안과 혁신적 공간 활용을 위해 일산호수공원 북서쪽 공간인 노래하는 분수 광장과 장미원을

포함하여 행사 구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정흥교 대표이사는 "올해 행사장의 총면적은 240,000㎡이다. 이번 꽃박람회는 지역의 자연환경과 전시복합산업(MICE) 관광시설의 연계 및 생태 정원, 장미원, 전통 정원, 노래하는 분수 등을 활용하여 공원의 정체성을 확립했다."고 말했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오늘의 날씨

3월 28일(木) 음력 : 2월 19일

수도권 날씨 9 ~ 14°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6:24 | 해질 / 18:51

연천 7/14, 동두천 8/14, 가평 5/14, 양평 8/14, 용인 9/13, 수원 9/13, 인천 9/13, 파주 7/13, 평택 8/14, 백령도 6/10, 서울 9/14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태국 원정 마친 대표팀, 국내파+김문환 오늘 귀국
▲손흥민, 장기 재계약 가능성...토틸, 팀 정책까지 바꾼다 /사진 뉴시스

▲MLB닷컴 본토 개막전 예상, 이정후 1번 vs 김하성 5번
▲올해도 이어진 봄 징크스 프로야구 kt, 조급증은 없다



▲베트남 축구 1승9패 팬들 "역시 감독 중요"
▲'오클랜드전 침묵' 이정후, 타율 0.343으로 시범경기 마무리 /사진 뉴시스